

# 경기도,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평택·서해안·경기북부·동부 4곳 ... 연료전지 연구·생산기업 입주

경기도 평택시와 경기북부 등에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4곳이 조성되고 평택시 소사벌지구와 광교신도시 등이 신·재생 에너지 시범도시로 꾸며진다.

경기도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3조-4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Green)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월16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산업, 보급, 연구 등 3개 분야 11개 시책사업으로 구성됐다.

평택과 서해안 간척지, 경기북부, 경기동부 등 4곳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태양광, 지열,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연구·생산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천과 파주, 안성에 운영하고 있는 3개 축산 바이오플랜트도 포천시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된다. 축산 바이오플랜트는 축산분뇨를 활용해 열과 비료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생산 시설이다.

보급 분야는 2010년까지 교통신호등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100% 교체하고 평택 소사벌지구와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경기뉴타운 곳곳이 신·재생 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또 주유소와 학교, 공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과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보급도 확대된다.

연구·개발 분야로는 수원 나노소자특화팩센터에 태양전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1000억원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기금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 추진에 3조-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의 70%는 민간자본, 나머지 30%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17>